이렇게 들었다

청소년 흡연

연기로 건강 태울 수 없다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 갔고, 어떤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처님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하여 제자들이 지키게 했다.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말라. 이 일은 생각하고 이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끊고 이것은 잘 지켜라."

〈사분율〉

◰이 몸이 영원한 줄 어이해 믿었던고. 수행을 멀리하고 낭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업 즐기기 다하다, 노병에 짝 잃으니 후회해 무엇하리. 〈법구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골초 천국이다.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70%에 육박해 세계 1위이며,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도 매우 높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암 사망률이 위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최근의 통계만 보아도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해악은 상당히 크다.

이같은 시점에서 20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청사, 영 · 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 · 중 · 고교, 의료기관 등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철거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지다.

청소년 흡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각계에서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절대적인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가하면 각종 금연 캠페인, 흡연 예방을 위한 상담실 운영 등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와 흡연은 '너무 쉽게' '너무 가까이'에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담배 피우는 어른들을 곳곳에서 접하고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금연을 외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각종 제도적 규제와 발맞춰 "먼저 자기가 악을 제거한 다음 남을 가르쳐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우바새계경>의 부처님 말씀을 따라 청소년들의 행동 모델이 되는 어른들의 의식과 행동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흡연자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속수무책 노출되었던 많은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열쇠를 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캠페인만으로는 안되기에 이제 제도적으로 청소년 흡연을 막자고 나섰다. 제도는, 이를 따르는 사람들의 실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많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천미희 기자

생명 존엄성 무너뜨리는 안락사

불자세상보기

의사협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 마련

불살생의 가르침 어떤 명분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윤리적 논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안락사란 어원적으로는 '행복한 죽음'이라는 그리스어에서 근원한 말을 영어로 'Euthanasia'라 명명했고, 동양어권에서 이를 안락사라고 번역했다. 안락사는 불치의 말기암 환자와 같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할 때 편한 죽음에 이르도록 '사망'을 시키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연장장치 등을 제거하여 자연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안락사가 윤리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위적인 생명연장의 무의미성에 주목하여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목소리와 인간생명의 존엄에 대한 경시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충돌도 거기에서 기인한다.

우선 불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불교는 죽음을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한 과정이자 인간실존으로 보고 있다. 괴로움도 명백히 인간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가 최대의 수행과제이고, 그 이상적 경지를 열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죽음과는 차이가 있다. '적멸(寂滅)의 즐거움'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열반은 진정 존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 대한 살해, 자살을 금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곤충 등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해 혹은 폭력을 금하고 있다. 적극적으로는 구속된 동물이나 조수(鳥獸) 등을 구조하는 방생을 의례로 시행하여 신행활동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니, 하물며 인간생명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명에 대한 불살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락사는 인간생명의 존엄함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안락사의 전제조건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나 고통에 연유한다고 할지라도,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번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윤회하여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할 그의 業(Karma)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고통이 다음 생에 짊어져야할 빚으로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인간생명이 창조자의 몫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기독교의 입장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닌 현장의사들의 고뇌어린 결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락사가 자비로운 동기에 의거한다고 하더라도 살생의 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한 살생의 업이 고뇌어린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또 모르되, 의사의 윤리지침이나 입법화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생명 경시의 제도화로 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희재
광주대 교수
철학과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전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불교포럼 '다종교사회, 문명충돌인가 새희망인가'

이찬수 교수 ' 종교간 불화와 조화' 주제발제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 김연규)이 28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다종교 사회, 문명충돌인가 새 희망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찬수 교수(강남대 종교학 · 사진)가 '종교간의 불화와 조화'라는 주제로 지정발제하고, 유왕종 교수(성결대), 김 진씨(크리스찬아카데미 연구원), 최종석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다음은 이찬수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경험은 다양하고 상대적이기 마련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 그러나 비록 종교적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날 경우, 인간경험의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종교 진리의 절대적 성격과 인간 경험의 다양성의 충돌이 결국 종교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살필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경험에 기초한 종교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타인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릇된 종교행위이자 자기중심적이고 속 좁은 주장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김덕수의 사물놀이와 심수봉의 노래를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에도 종교라는 이름이 첨가되면 그 양상은 돌변한다. 원효 스님만 해도 그렇다. 누구나 원효 스님을 커다란 족적을 남긴 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요한 사상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은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효 스님의 업적에 대해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한다.

수많은 종교전쟁은 소극적인 '무시'를

"스스로의 종교 올바른 믿음 있다면 갈등과 충돌 없다"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타종교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아예 말살하려고까지 하는 극단적 배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충돌은 스스로는 보편적 진리라고 내세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 '폐쇄적 종교관'이 낳은 사건이다.

종교사학자 스미스는 "모든 종교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라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인간에게 다양한 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종교를 폐쇄된 체계가 아닌 개방적인 체계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경험일 것이다. 불교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교적 가치도 발견할 줄 아는, 인간 내면의 초월적 가치를 구체화시킬 줄 아는 자세가 진정한 종교적 자세이다.

부처와 예수는 서로 대립하고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했다. 스스로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갈등이나 충돌은 있을 수 없다. 단순하지만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



◇지난해 6월 동국대 본관 앞 석가여래청동입상이 이교도에 의해 훼손당한 모습.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쓴 당시 훼불 사건은 배타적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관인지를 보여주었다.

기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명백한 테러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우리 사회에서는 승진이 곧 성공으로 통한다. 모든 사람의 인생 목표가 승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승진 일순위에서 탈락된 사건이 충북 제천 정확히 제천보건소에서 발생했다. 그 이유는 승진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것, 단지 그 뿐이었다.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주인공 이희원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이다. 대학 재학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오른 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큰 뜻으로 보건의를 택했다.

그는 10년 동안 제천보건소에 재직하며 제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바쳤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착실히 달려왔기에 승진 일순위 자리까지 와있었는데 느닷없이 길을 비키라고 하니 어떻게 그 횡포에 침묵할 수 있었으랴.

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아니 장애인들의 꿈을 산산 조각낸 사람은 단 한명의 최고 결경권자였다. 장애인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제천시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저급한 편견이 장애인계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것은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테러이다. 이희원씨는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번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영원히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결격자가 된다.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미국 최고 통치자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의 장애인이었고, 지난해 퇴임한 헌법재판소 김용준 소장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었다. 제천시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승진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